

● 時 論

## 「冊속의 길」 「나의 길」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이것은 올해 「독서 주간」에 내건 표어의 하나다. 해마다 초가을을 알리는 독서주간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포스터와 표어를 만들어 뿌리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무료개방한다고 한다. 이튿날 책방이 전자오락실로 바뀌고, 청소년은 책살돈을 전자오락실에서 날리는 판에 해마다 한번씩 「경고」를 울리는 행사다.

따지고 보자면 우리 둘레에 책이없는 것도 아니고, 「책속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여름철 파리를 날리던 책방에서도 최근엔 특히 「출세 교본」이 불티나듯 팔리고 있다한다, 「성공 비결」을 가르치는 일본책 번역판이다. 엇비슷한 번안물들이 2백가지나 되고있다는 얘기가.

사람들은 그야말로 「책속에 있는 길」을 「나의 길」로 만들려고 학습참고서나 과외교사를 스카우트하듯 군침을 흘리고 있다. 덩달아 성공비결을 가르치는 학원도 서울에만 3백군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세상은 길을찾되 처세의 길을 찾고, 읽고 생각하기 보다는 보고 즐기기만을 추구하는 판이다. 독서주간이 낡은 레코드판 돌아가듯 헛도는 이유다.

해마다 독서주간이라는 제도적 캠페인을 벌여야될 만큼 우리의 문화적 위기는 심각하다. 그것은 이미 출판계나, 일부의 직업적인 원고생산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독서캠페인은 巨視的으로는 보다 공공정책에 눈을 돌리고, 미시적으로도 보다 세련된 독서풍토개발의 길을 찾아야될 것이다. 우리의 공공문화정책에서 거의 제외되 다시피 하고있는 지역사회 도서관의 건설,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예산확보를 보다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된다. 도서관이 없는 「제도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자격증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치게 「대중문화」만을 공급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편성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사실상 국영인 텔레비전 3개 채널중 적어도 하나는 고문문화공급의 채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숨가쁜 속세의 시민들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도심의禪房을 찾듯, 책을 찾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날 우리문화계가 안고있는 최대의 숙제다.

「진실은 우리 자신 속에 있다」고 19세기의 시인 브라우닝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진실은 언제나 새롭다」는 것은 바이런의 말이였다. 책은 언제나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원천이다. 그것이 없다면 국민총생산의 성장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책읽기 캠페인을 해마다 벌여야되는 우리의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업자와 당국과 원고생산자와 시민 모두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한국일보 83. 9. 24)